

大韓韓方婦人科學會誌에 收載된 論文에 대한 分析考察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婦人科學教室
박경희, 조정훈, 장준복, 이경섭

ABSTRACT

Analytic Study on Treatises of the Journal of Oriental Gynecology

Kyung-Hee Park, Jung-Hoon Cho, Jun-Bock Jang, Kyung-Sub Lee

Dept. of Oriental Gynec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Seoul, Korea

Objectives : Every year tens of treatises have been published on the journal of oriental gynecology. But until now there were no papers on the analysis of those treatises and no efforts to evaluate them.

Method : To analyze the treatises of journal of oriental gynecology, we examined 19 journals published from 1987 to 2001. There were no rules to analyze treatises, we followed the way of Seo, classifying treatises into bibliographic, experimental and clinical categories.

Results and conclusions :

1. Until 1994 most of treatises were bibliographic but from 1995 experimental treatises were increased.
2. Many(29.5%) of them were studied about the diseases in pregnancy, many(25.4%) of experimental treatises were researched about the diseases on leukorrhea.
3. In the clinical treatises most of them were case reports.
4. In the bibliographic treatises 90% of them were studied about the classic contents categories.

5. In the clinical treatises the way of treatment showed about same percentage between single herb medication and acupuncture-herb medication complex.

Key Words : analysis&evaluate, the journal of oriental gynecology, bibliographic, experimental and clinical categories

I. 緒論

論文이란 自己의 識見이나 思想, 또는 研究結果를 整理하여 글로 表現한 것으로, 發見된 道理나 事實의 報告書이며 研究와 思索의 記錄으로서 自己의 想想이나 意見을 論理的으로 整理하여 表現한 文章이다^{1,2)}. 따라서 論文은 相當한 時間과 努力を 기울여 發見한 事實을 論理的으로 說明한 글로서 學問의 研究나 發展過程에서 밀거름이 된다.

韓醫學界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論文이 한 해에도 수백편 이상이 報告되고 있는데, 그 中婦人科學에 관련된 論文은 주로 大韓韓方婦人科學會誌를 통하여 發表되고 있다. 大韓韓方婦人科學會誌는 1987년부터 大韓韓醫學會의 分科學會誌 형태로 처음 刊行되었다. 그 후 1997년부터는 年 2회 發刊되어 2001년까지 총 19권이 刊行되었으며, 大韓韓方婦人科學會가 大韓韓醫學會안에 分科學會로 있다가 獨立學會로 분리됨으로써 가일층 發展할 土臺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大韓韓方婦人科學會誌의 위상도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이렇게 韓方婦人科學會誌가 發刊된 지도 벌써 16년이나 되었고 每年 수십 편의 論文이 나오고 있는 實情이지만 지금까지 發表되었던 論文의 內容에 대한 分析, 評價 作業이나 傾向에 대한 研究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著者는 1987년부터 2001년까지 大韓

韓方婦人科學會誌에 發表된 論文을 內容別 分類를 통한 統計的 資料를 導出한 結果 知見을 얻었기에 그 結果를 다음과 같이 報告하는 바이다.

II. 本論

1. 調查對象

大韓韓醫學會에서 發행한 1987년 創刊號부터 2001년 14권 2호까지 총 19권의 大韓韓方婦人科學會誌에 收載된 論文을 對象으로 하였다.

2. 調査方法

醫學研究를 分類하는 基準으로는³⁾ 여러 가지가 있으며⁴⁾ 아직 學者들 간에 統一되어 있지 않고 또 論文의 內容이나 特性에 따라 分類하는 特定化된 方法이 아직까지는 정해져 있지 않은 관계로 徐⁵⁾의 方법을 따라 文獻論文, 實驗論文, 臨床論文의 세 種類로 分類하였다.

文獻論文이란 論文의 內容이 文獻을 中心으로 歷史的으로 考察을 하였거나 어떤 疾患에 대하여 여러 文獻에 나타난 바를 概括的으로 調査하여 기술한 論文을 말하며, 實驗論文이란 인간 이외의 動物을 對象으로 하여 餘他의 實驗的方法을 통하여 나타난 結果를 發表한 論文을 말하고 臨床論文이란 人間을 상대로 實驗的方法을 통하여 나타난 結果나 어느 疾患의 治療經過를 發表한 論文을 말한다.

婦人科學은 臨床醫學의 한 分야로서, 女性的 疾病과 그 治療法을 전문으로 研究하는 學問이

다. 그 具體的인 範圍를 종래의 韓方婦人科學文獻에 의거하여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綏·帶·胎·產의 四方面을 主要한 内容으로 삼고 있다. 綏에는 月經과 관련된 痘變이, 帶에는 性器와 관련된 痘變이, 胎에는 妊娠과 관련된 痘變이, 產에는 分娩과 產後病이 包含된다^[6,7].

이에 따라 논문을 그 特性에 따라 크게 文獻論文, 臨床論文, 實驗論文의 세 종류로 분류한 후에 각 論文의 주제별 분류에서는 内容에 따라 綏·帶·胎·產의 네 範疇로 나누어 정리해 보았다.

宋^[7]의 分類에 따라 更年期 症候群에 대한 論文은 綏의 範疇로, 性器병인 帶下, 積聚, 外性器 及 乳房病은 帶의 範疇로 보고 卵巢摘出한 경우나 骨多孔症에 대한 論文은 其他 範疇로 보았다.

3. 調查結果

1) 각 年度別 論文 篇數

調査對象은 총 290편이었는데, 연도별 논문 편수는 Table 1 과 같으며, 1997년 이후에 발표 편수가 갑자기 증가한 것은 연간 발행권수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1. Number of Treatise according to Years

| Year of publication | Number of Treatise(%) |
|---------------------|-----------------------|
| 1987 | 8(2.8) |
| 1988 | 8(2.8) |
| 1989 | 7(2.4) |
| 1991 | 6(2.1) |
| 1992 | 9(3.1) |
| 1993 | 11(3.8) |
| 1994 | 11(3.8) |
| 1995 | 10(3.4) |
| 1996 | 14(4.8) |
| 1997 | 29(10.0) |
| 1998 | 35(12.1) |
| 1999 | 37(12.7) |
| 2000 | 52(17.9) |
| 2001 | 53(18.3) |
| Total | 290 |

2) 文獻論文, 實驗論文, 臨床論文의 比率
文獻論文, 實驗論文, 臨床論文의 편수 및 비율은 Table 2와 같으며, 實驗論文이 가장 많았다. Table 1에서 1992년에 發表된 論文 편수가 총 9편인데, 婦人科와는 無關한 내용의 他科 論文이 2편 실렸기에 저자 임의로 内容別分類에서는 아예 除外시켰기 때문에 Table 2 이하에서는 1992년 發表 論文 편수는 7편으로, 전체 論文數는 288편이 되었다.

Table 2. Number of Treatise Type

| Treatise type | Number(%) |
|-----------------------|-----------|
| Literatural treatise | 113(39.2) |
| Experimental treatise | 118(41.0) |
| Clinical treatise | 57(19.8) |
| Total | 288(100%) |

3) 각 年도별 文獻論文, 實驗論文, 臨床論文의 比率의 變化

1994년까지는 文獻論文이 大部分을 차지하던 것이 1995년부터는 實驗論文이 급격히 늘어 점차 文獻論文보다 많은 比重을 차지하기 시작하였다. 臨床論文의 경우 일년에 한두 편이던 것이 97년부터는 늘어나기 시작하여 2001년에는 전체의 반을 차지하였다. (Table 3 참고)

4) 文獻論文의 内容上의 分類

文獻論文의 内容을 綏·帶·胎·產의 네 범주로 分류해 본 결과는 Table 4 와 같으며 '胎'의 범주에 해당되는 妊娠病이 가장 많았다.

Table 3. Number of Literatural, Experimental, Clinical treatise according to Years

| 연도 | 文獻論文 | 實驗論文 | 臨床論文 | Total |
|----------|------------|----------|-----------|-----------|
| 1987 | 5 | 1 | 2 | 8 |
| 1988 | 7 | 0 | 1 | 8 |
| 1989 | 4 | 1 | 2 | 7 |
| 1991 | 3 | 1 | 2 | 6 |
| 1992 | 6 | 1 | 0 | 7 |
| 1993 | 9 | 2 | 0 | 11 |
| 1994 | 9 | 2 | 0 | 11 |
| 1995 | 2 | 7 | 1 | 10 |
| 1996 | 3 | 9 | 2 | 14 |
| 1997 | 15 | 10 | 4 | 29 |
| 1998 | 22 | 10 | 3 | 35 |
| 1999 | 12 | 22 | 3 | 37 |
| 2000 | 7 | 34 | 11 | 52 |
| 2001 | 9 | 18 | 26 | 53 |
| total(%) | 113(39.2%) | 118(41%) | 57(19.8%) | 288(100%) |

Table 4. Analytic study on literatural Treatises

| 연도 | 經 | 帶 | 胎 | 產 | 其他 | total |
|----------|-----------|-----------|-----------|-----------|-----------|-----------|
| 1987 | 1 | 1 | 3 | 0 | 0 | 5 |
| 1988 | 1 | 0 | 4 | 2 | 0 | 7 |
| 1989 | 1 | 2 | 1 | 0 | 0 | 4 |
| 1991 | 0 | 1 | 1 | 1 | 0 | 3 |
| 1992 | 1 | 0 | 2 | 2 | 1 | 6 |
| 1993 | 1 | 1 | 4 | 2 | 1 | 9 |
| 1994 | 1 | 4 | 2 | 1 | 1 | 9 |
| 1995 | 1 | 0 | 0 | 1 | 0 | 2 |
| 1996 | 0 | 1 | 1 | 1 | 0 | 3 |
| 1997 | 1 | 1 | 7 | 3 | 3 | 15 |
| 1998 | 3 | 6 | 3 | 2 | .8 | 22 |
| 1999 | 1 | 0 | 3 | 4 | 4 | 12 |
| 2000 | 0 | 2 | 2 | 0 | 3 | 7 |
| 2001 | 0 | 0 | 0 | 2 | 6 | 8 |
| total(%) | 12(10.7%) | 19(16.9%) | 33(29.5%) | 21(18.8%) | 27(24.1%) | 112(100%) |

5) 實驗論文의 内容上 分類

實驗論文의 内容을 分類해 본 결과는 아래 Table 5 와 같은데, '帶'의 범주에 해당하는 性器病이 제일 많았으며, 經·帶·胎·產의 네範疇에 해당하는 경우가 90편으로 전체의 76.3%를 차지하였다. 기타에 포함시킨 論文 중에는 胎多孔症에 관한 論文이 9편, 肥滿에 관한 論文이 2편, 藥針에 관한 논문이 9편이었다.

6) 臨床論文의 内容分析

臨床論文을 内容上 分類해 본 결과는 아래 Table 6 과 같았으며, 기타의 범주에는 赤外線體熱診斷器機를 이용한 論文이 2편, 良導絡診斷器機를 이용한 論文이 1편, 病院 實態 및 患者들의 認識調查에 관한 論文이 9편이었다. 患者的 臨床考察이 대부분이던 것이 최근에는 患

Table 5. Analytic study on Experimental treatises

| | 經 | 帶 | 胎 | 產 | 其他 | total |
|----------|-----------|-----------|-----------|-----------|-----------|-----------|
| 1987 | 1 | 0 | 0 | 0 | 0 | 1 |
| 1988 | 0 | 0 | 0 | 0 | 0 | 0 |
| 1989 | 0 | 1 | 0 | 0 | 0 | 1 |
| 1991 | 0 | 1 | 0 | 0 | 0 | 1 |
| 1992 | 0 | 1 | 0 | 0 | 0 | 1 |
| 1993 | 0 | 0 | 1 | 1 | 0 | 2 |
| 1994 | 0 | 0 | 0 | 1 | 1 | 2 |
| 1995 | 2 | 3 | 2 | 0 | 0 | 7 |
| 1996 | 6 | 1 | 0 | 2 | 0 | 9 |
| 1997 | 2 | 7 | 0 | 1 | 0 | 10 |
| 1998 | 1 | 3 | 3 | 1 | 2 | 10 |
| 1999 | 4 | 3 | 7 | 6 | 2 | 22 |
| 2000 | 2 | 8 | 9 | 1 | 14 | 34 |
| 2001 | 4 | 2 | 1 | 2 | 9 | 18 |
| total(%) | 22(18.7%) | 30(25.4%) | 23(19.5%) | 15(12.7%) | 28(23.7%) | 118(100%) |

Table 6. Analytic Study on clinical treatises

| 연도 | 經 | 帶 | 胎 | 產 | 其他 | total |
|----------|----------|----------|-----------|-----------|-----------|----------|
| 1987 | 0 | 1 | 1 | 0 | 0 | 2 |
| 1988 | 0 | | 1 | 0 | 0 | 1 |
| 1989 | 0 | 1 | 1 | 0 | 0 | 2 |
| 1991 | 0 | 1 | 1 | 0 | 0 | 2 |
| 1992 | 0 | 0 | 0 | 0 | 0 | 0 |
| 1993 | 0 | 0 | 0 | 0 | 0 | 0 |
| 1994 | 0 | 0 | 0 | 0 | 0 | 0 |
| 1995 | 0 | 0 | 0 | 0 | 1 | 1 |
| 1996 | 1 | 1 | 0 | 0 | 0 | 2 |
| 1997 | 1 | 0 | 2 | 0 | 1 | 4 |
| 1998 | 2 | 0 | 0 | 0 | 1 | 3 |
| 1999 | 1 | 0 | 0 | 1 | 1 | 3 |
| 2000 | 1 | 2 | 3 | 3 | 2 | 11 |
| 2001 | 3 | 2 | 3 | 6 | 12 | 26 |
| total(%) | 9(15.8%) | 8(14.0%) | 12(21.1%) | 10(17.5%) | 18(31.6%) | 57(100%) |

者 治驗例가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1999년에 良導絡診斷器機를 이용한 論文이

7) 實驗動物別 分類

實驗對象動物의 경우 白鼠, 마우스같은 쥐 종류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Table 7).

8) 새로운 診斷器機를 이용한 論文

Table 7. Analytic study on experimental animals

| 動物種類 | 논문수 |
|-------|-----|
| 토끼 | 3 |
| 쥐 | 93 |
| 소 | 3 |
| 기타 | 19 |
| Total | 118 |

1편, 2001년에 赤外線 體熱診斷器機를 이용한 臨床論文이 2편이 있었다.

9) 針灸關聯 論文

毫針關聯 論文으로는 1988년 1편(不孕의 針灸治療에 대한 考察), 1989년 2편(崩漏의 針灸治療에 대한 考察, 妊娠中 顏面神經麻痺 治驗 8례), 1992년 1편(遺精의 針灸治療에 대한 考察), 1993년에 1편(婦人科疾患의 溫灸 治療에 관한 文獻的 考察)이 있었다. 이 중 3편은 사 실상 針灸科에서 發表한 論文이었고, 1편은 針灸科와 婦人科에서 共同으로 施行한 臨床論文이었다. 藥針에 관한 論文으로는 1996년에 1편, 2000년에 6편, 2001년 3편 있었고, 모두 慶熙大에서 發表했으며 1편은 臨床論文이었고 9편은 實驗論文이었다.

10) 臨床論文의 治療方法別 分類

臨床論文의 治療方法別 分類에서 韓藥治療와 韓藥과 針灸 其他複合治療를 兼한 경우가 같았다. 其他治療에는 考察이나 實態分析이나 設問調查 등을 포함시켰다. 其他 複合治療法에는 體鍼, 耳針, 灸, 乾式 및 濕式 附缸, 香氣療法 及 色彩療法, 램프 마사지가 있었다(Table 8).

Table 8. Analysis of Treatment tools of clinical treatises

| treatment tools | number of treatises |
|-----------------|---------------------|
| 韓藥治療 | 14 |
| 韓藥과 針 兼治 | 1 |
| 韓藥과 針, 其他 | 14 |
| 複合治療法 兼治 | |
| 其他 治療 | 27 |
| 藥針 | 1 |
| total | 57 |

III. 總括 및 考察

論文이란 한 學者가 어느 課題를 設定하고 서 상당한 시일에 걸쳐 研究에 從事하여 얻은 바 새로운 事實을 學界에 公表하려고 執筆한 글이다⁸⁾. 이처럼 論文은 作者의 刻苦의 努力を 통해 나타난 結果物로서 學問 發展의 바탕이 되는 것으로 그 가치가 있는 것이다.

著者는 大韓韓方婦人科學會에서 發행한 大韓韓方婦人科學會誌에 收載된 論文만을 대상으로 하여 創刊號부터 현재까지 총 288편에 대해 内容別 分類를 시작하였다.

醫學 分野의 論文을 分類하는 基準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아직 統一 된 分類法은 없다. 一例를 들면 研究目的에 따라 記述研究, 分析研究, 過程研究로 나누거나 實驗有無에 따라 實驗的 研究와 非實驗的 研究 혹은 觀察에 의한 研究, 斷面의 研究와 追跡研究로 나눌 수 있다⁹⁾. 이번 調査의 경우는 크게 文獻論文, 實驗論文 臨床論文 등으로 分類한 후에 각 論文 主題別 分類에서는 내용에 따라 經帶胎產의 네 범주로 나누어 정리했다.

그 동안 多數의 婦人科 論文들이 發表되었음에도 不拘하고 體系的 整理나 内容의 分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内容이나 方法의 重複性으로 시간과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거나 婦人科學界의 무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이번 考察은 이런 여러가지 痘幣를 豫防하고 婦人科의 관점에서 현대의 婦人科學의 研究風土와 傾向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우선 年度別 論文數를 보면 1997년에 들어 급격히 늘어나는 樣相을 보이고 있다(Table 1 참조). 이는 연간 發行권수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論文 發表와 治法의 公開에 대한 認識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大學院生의 수의 증가도 어느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文獻論文, 實驗論文, 臨床論文의 比率을 보면 實驗論文이 118편(41.0%)로 가장 많았다(Table 2 참조).

각 年도별 文獻論文, 實驗論文, 臨床論文의 比率을 보면 1994년까지는 文獻論文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反面, 1995년부터는 實驗論文이 급격히 늘어 점차 文獻論文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實驗論文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원인은 實驗器機의 發達, 實驗論文의 價值性 認識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臨床論文의 경우는 1년에 한 두편이었던 것이 97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했고 2001년에는 전체 論文數의 반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처럼 臨床論文이 늘어난 것은 專門醫 制度로 인해 修鍊過程에서 臨床研究 成果를 정리한 論文을 掲載할 必要性 때문이기도 한 듯하다(Table 3 참조).

文獻論文의 内容上의 分類에서는 '胎'의 범주가 29.5%로 가장 많았다(Table 4). 實驗論文의 内容上의 分類에서는 '帶'의 범주가 25.4%로 가장 많았다(Table 5). '帶'의 범주에 해당하는 性器病(崩漏, 帶下, 積聚, 外性器及 乳房病)이 비교적 많았던 것은 비교적 實驗하고 結果를 導出해내기가 容易해서인 듯 하다. 實驗論文의 内容을 살펴보면 전통적인 經·帶·胎·產의 네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가 90편으로 전체의 76.3%를 차지하였으며, 其他에 포함시킨 論文 28편 中에는 骨多孔症에 대한 것이 9편, 肥滿에 대한 論文 2편, 藥針에 대한 것이 9편이 있어 최근 韓醫學界에서의 關心分野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臨床論文의 内容上의 分類에서는 其他가 31.6%, '胎'의 범주가 21.1%였다(Table 6). 기타에는 病院實態 및 환자들의 認識調査에 대한 論文이 9편이 있었고, 患者的 臨床考察이 대부

분이던 것이 최근에는 患者的 治驗例가 臨床論文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는 專門醫 修鍊過程에서의 臨床研究 성과를 정리한 論文이 대부분이었는데 각 修鍊病院의 臨床成果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여지며, 또한 여러 檢查方法을 통한 治療效果의 客觀的 檢證이 가능하고 많은 case를 모을 수 있는 病院 特性 때문에 臨床論文은 계속 늘어날 것 같다. 이같은 추세는 學會誌를 통해 모든 회원들이 자신의 研究成果를 檢證받고 臨床情報 to 公有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意義가 있다고 보여지며 각자가 더욱 더 論文의 内容에 대해서 責任意識을 가져야 할 듯하다.

臨床論文에서의 治療方法을 살펴보면 韓藥治療가 14편, 韓藥과 針治療을 병행한 경우가 1편, 韓藥과 其他 複合治療를 兼한 경우가 14편, 그외 臨床考察 및 實態分析이 27편이었다(Table 8). 產後風, 產後憂鬱症 같은 產後病이나 嫊娠病의 경우는 針治療보다는 韓藥과 其他 溫灸나 附缸治療등이 兼해진 경우가 많았다. 기타 複合治療에는 體鍼, 耳針, 灸, 乾式 및 濕式 附缸, 香氣療法 및 色彩療法, 림프막사지가 있었다.

針灸關聯 論文을 살펴보면 毫針 關聯 論文이 총 5편으로 전체 288편에 대해 1.74%를 차지하였지만, 이 중 3편은 針灸科에서 發表한 文獻論文이었고, 1편은 針灸科와 婦人科에서共同으로 시행한 臨床論文으로 婦人科領域에서의 針灸治療에 더 많은 關心을 가져야 할 듯하다. 특히나 針灸關聯實驗論文이 없는 것은 婦人科 疾患들이 針灸科에서 흔히 接하는 疼痛疾患처럼 針治療 effect를 즉각적이고 명확하게 導出해내기가 어려운 점도 작용한 것 같다. 藥針에 관한 論文으로는 모두 10편(임상1편, 實驗9편)이 있었는데, 臨床論文 57편에 대해서는 1.8%, 實驗論文 118편에 대해서는 7.62%를 차지하였고, 전체 論文 288편에 대해서는 3.4

7%를 차지했다. 이는 97년까지 발표된 针灸學會誌에 실린 藥針關聯 實驗論文이 94편, 针과 樂針의 複合治療에 관한 實驗論文이 3편, 臨床論文이 1편, 文獻論文이 1편으로 총 99편(전체論文 389편에 대해 25.4%)인 것에 비해 작을 수 알 수 있다 藥針療法이 요즈음 새로운 施術方法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많은 研究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생각해 볼 때 韓方婦人科에서도 좀 더 關心을 가져야 할 것 같다.

實驗對象의 경우 白鼠, 마우스 같은 쥐 종류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118편 중 93편이었고, 家兔 등을 이용한 경우는 드물었다. 이는 白鼠가 實驗과 統計가 容易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診斷器機를 이용한 論文으로는 赤外線體熱診斷器機를 이용한 論文이 2편, 良導絡診斷器機를 이용한 論文이 1편이 있었으며, 이는 최근 새로운 診斷器機에 대한 韓醫學界의 關心과 時流를 보여주고 있다고 思慮된다. 하지만 2002년 5월에 大韓韓方體熱醫學會誌가 새로 發刊됨에 따라 婦人科學會誌에 赤外線體熱診斷器機를 이용한 論文이 계속 실리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IV. 結論

著者는 1987년부터 2001년까지 大韓韓方婦人科學會誌에 發表된 論文 288편을 調査하여 内容別로 分類한 결과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 1994년까지는 文獻論文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反面 1995년부터는 實驗論文이 점차 늘어 文獻論文보다 많은 比重을 차지하기 시작했다.

2. 文獻論文의 경우는 内容上 '胎'의 범주가 가장 많았고(29.5%), 實驗論文의 경우는 '帶'의

범주가 가장 많았다(25.4%). 臨床論文의 경우 其他 31.6%, '胎'의 범주가 21.1%로 그 다음 順이었다.

3. 臨床論文의 경우 患者的 治驗例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4. 文獻論文의 경우 전통적인 經·帶·胎·產의 네 범주가 90편으로 전체의 76.3%를 차지하였다.

5. 臨床論文에서의 治療方法을 살펴보면 韓藥治療만 하는 경우와 韓藥과 针治療 외 複合治療를 같이 한 경우가 비슷했다.

6. 针灸關聯 論文은 毫針 關聯 論文이 5편, 藥針 關聯 論文이 10편으로 많지 않았다.

7. 實驗對象의 경우 白鼠, 마우스 같은 쥐 종류가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家兔 등을 이용한 경우는 드물었다.

參考文獻

1. 박은자 외. 論文작성의 이론과 실제. 서울:수서원, 1992;14.
2. 이홍탁. 社會調查方法論. 서울:법운사, 1994;15-17.
3. 김순규, 신상철. 研究方法과 論文作成. 서울:박영사, 1977;36-38.
4. 김용일, 안윤옥. 醫學博士學位論文 작성 지침서. 서울:서울대학교 出版部, 1993;3 3-35.
5. 서정철. 大韓針灸學會誌에 收載된 論文에 대한 分析考察. 大韓針灸學會誌. 1999;16(1):125-144.
6. 김은기. 婦人科疾患의 溫灸治療에 關한 文獻的 考察. 大韓韓方婦人科學會誌. 1993;6(1):125.
7. 송병기. 韓方婦人科學. 서울:행림출판, 1996;17.
8. 이승령. 논문작성과 연구태도. 서울:박영사, 1986;7.
9. 신영수, 안윤옥. 의학연구방법론.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43-47.